

불혹 5·18, 흔들리지 않는 윤상원을 만나다

광산구, 40주년 맞아 10~27일까지 '오월문화제' 개최
마당극·영화·토크콘서트 등... 시민 안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광주시 광산구는 "5·18 40주년을 맞아 '불혹 5·18, 흔들리지 않는 윤상원'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로 구성된 '2020 광산오월문화제'를 광산문화예회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10~27일 이어지는 광산오월문화제에서는 광산구 출신으로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삶과 사상이 집중 조명된다. 윤 열사의 삶과 사상을 통해 누구도 흔들거나 왜곡할 수 없는 민주주의 역사를 전국에 각인하기 위해 이번 문화제를 기획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당극·영화·낭독극·토크콘서트 등 대중에게 친숙한 무대들로 문화제를 꾸며주며, 첫 문은 오는 10일 마당극 전문 연희단체인 놀이패 '신명'이 오월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로 연다.

'언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광주가 겪었던 아

픔·슬픔·극복 과정을 그려내고 있으며, 문화제 행사 중 유일하게 광산문화예회관이 아닌 수완호수공원에서 열린다. 마당극에 이어 광산문화예회관에서는 12일 오월 청년콘서트 화요문화산책 '오월의 향기'가 이어진다.

청년예술단체인 국악양상블 '해탄'은 이 무대에서 윤 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판소리 '윤상원가'를 들려준다. 또 윤 열사 추모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한 민중가요에 국악 선율을 입혀 선보인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에는 광산구립합창단, 광주흥사단합창단, 푸른솔합창단이 합창공연 '오월국제교류음악회'를 통해 아시아에 5·18 40주년을 알린다.

2014년부터 매년 광산구립합창단과 협연을 이어오던 일본 일어서라합창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는 동영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잘 알려



윤상원
진 박기복 감독의 새 5·18영화 '낙화전향'을 첫 상영한다.

'2019 광주브랜드 극영화제작지원' 선정 작품인 이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열리는 뮤지컬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온 여대생이 계엄군에 쫓기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밖에도 23일엔 오월 낭독극 'May, be...'도 준비돼 있다. 민중가요와 5·18 자료사진으로 구성된 이 낭독극에는 배우 허성태씨가 특별출연해 윤 열사의 일기를 관객에게 들려준다.

광산오월문화제의 대미는 27일 오월토크콘서트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장식한다.

광산구는 5·18민주화운동 최초의 체계적 기록물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기록자이자 소설가인 황석영 작가를 초청해 윤 열사와 5·18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카펠라그룹 '노래숲'은 황 작가의 이야기에 민중가요를 더해 무대를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광산구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고, 문화예술인의 공연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온라인 생중계, 최소 관중 등을 접목해 광산오월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도서관 프로그램 집에서도 즐긴다"
시립도서관, 온라인 북 큐레이션 운영

광주 시립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달간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citylib.gwangju.kr)를 통해 운영한다.

무등도서관은 ▲나에게 감동을 준 도서의 한 구절을 소개하는 '책 속의 한 줄'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기억하겠습니다. 5·18' 상영 ▲공공도서관 인기도서 목록 배부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내가 읽은 좋은 책 소개하기 ▲5·18 추천도서 목록 배부 ▲도서 대출 정지 이용자 중 연체도서 반납시 연체 해지를 신청하면 대출 정지를 해제해주는 '도서대출 연체 탈출' 등 3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무등(613-7727)·사직(613-7781)·산수(613-7812)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소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광주시, 구청·세무서 한번에 신고

광주시는 "1일부터 6월 1일까지 5개 구청과 4개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을 통해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1833-9119)을 통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자동 연장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전화상담실(1661-1000, 110)이나 광주시, 각 구청 세무과(지방소득세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돼지열병 차단 거점소독시설 광산구, 이달말까지 연장 운영

광주시 광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에서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5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삼도동 대산삼거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가 지난 4월말까지 예정됐던 시설 운영 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은 영농 활동 시작기와 야생멧돼지 번식기인 봄철 양돈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한 예방적 조치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코로나19와 같이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며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 소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강도 높은 방역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한우·돼지 등 우재류에 치명적인 구제역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시 광산구는 야생멧돼지에서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5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광주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 선정 국비 80억 등 총사업비 226억 투자...반경 70km까지 수소 공급 가능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80억원, 한국가스공사 120억원, 광주시 26억원(부지매입비) 등 총 226억원을 투자해 평동산단 3차 부지에 수소 추출설비와 출하설비 등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치비 40%를, 한국가스공사가 60%를 부담해 설비 설치하고 향후 운영까지 담당하게 된다.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정부의 '수소

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사업으로, 광주·전남을 포함한 반경 70km 내 수소 공급이 가능한 호남권 거점 수소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수소생산시설이 없어 서산과 여수, 울산 등 100~300km에 달하는 다른 지역에서 주 7~8회 튜브트레이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아 운송비용 등으로 수소 공급가격을 낮추기 어려웠다.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수소공급 가격이 kg 당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돼 수소차 보급과 정부의 수소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산구, 소상공인 응원 '3Go 희망 캠페인' 추진 캠페인 참여자에 광주상생카드·온누리상품권 등 제공

광주시 광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사장님, 3Go! 희망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걱정말고(go)·힘내고(go)·견디고(go)'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골목상점에 다녀온 시민이 소상공인 가게를 응원하는 행사다.

참여는 캠페인 기간 동안 광산구 골목상권 가게를 방문한 시민이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가 담긴 사진·영상을 필수 해시태그인 #사장님 쓰리고! #상

호명 #함내자광산소상공인'와 함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산구는 캠페인 참여 시민에게 선호도 조사와 추천 등을 거쳐 광주상생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등을 시상상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손님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며 "가정의 달 5월에 가족 간 추억도 쌓고 소상공인도 도울 수 있는 캠페인에 많은 시민의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코로나에 더 빛난 광주상생카드 올 2400억...작년비 2.8배 급증

지역 자본 유출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광주상생카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생 카드 발행액은 지난달 30일 24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20일 출시 이후 연말까지 발행액(863억원)의 2.8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월별로는 1월 261억원, 2월 279억원, 3월 35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긴급 생계비 등 정책 자금 집행이 시작된 4월에는 1525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